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6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 일 시 : 2005. 7. 3일(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대전산내초등학교



주 최 : 대전산내학살 대책회의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

주 관 : 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회 대전특별위원회

대전유족회/여수·순천 유족회/대전산내학살 대책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충남본부

후 원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민족예술단 '우금치'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사)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제6차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행사순서

사 회 : 심규상(대전산내학살 진상조사단원)

<1부 / 개회식>

10:00 ~ 11:00

. 개회선언

김두연(제주4.3유족회 회장)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영령 묵념

.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경과보고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 추 도 사

이광재(대전산내학살 유족회 대표)

김두연(제주4.3 유족회 회장)

김천우(여수.순천 유족회 회장)

. 추 념 사

. 참석자 소개

. 결의문 낭독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범국민위원회 대표

<2부 / 위령공연 및 헌화>

11:00 ~ 11:40

. 위령 공연 및 헌화

주 관 / 민족예술단 '우금치'

<3부 / 중식 및 해산>

12:00 ~ 12:30

. 중 식

어두운 산내 골령골에 빛을 비춰라!

- 산내학살 희생자 여섯 번째 위령제에 부쳐 -

과거사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사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포함, 반공주의를 내세운 국가폭력에 희생된 각종 인권침해 사례의 진상을 밝히고 자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산내 골령골에 진실의 빛을 비추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은 피고 눈물이고 덩어리진 한입니다. 빨갱이란 손가락질, 연좌제로 칭칭 동여맨 굴레, 배우지 못한 차별을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소박한 삶의 꿈은 일찌감치 접고 단지 살아남기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하얗게 공포에 질려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친지들을 뭉그러진 가슴속에만 묻어 뒀아했던 아픔입니다. 왜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이 없느냐는 주변의 물음에 '산내 골령골에서 억울하게 총 맞아 죽어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나뒹굴고 있을 내 가족의 유골이 묻힌 골령골을 아무도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찾아야 했습니다.

거리마다 덕지덕지 나붙은 반공 포스터와 지워지지 않는 빨갱이 낙인이 자식들에게 까지 대물림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써 꼭 2달째가 됩니다. 이제 웅어리진 한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골령골에서 죽은 내 아버지가 이유 없이 끌려가 국가가 휘두른 야만스러운 몽둥이에 개처럼 두들겨 맞고 군화발에 밟히다 총알이 박혀 억울하게 죽어간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까? 정녕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제 산내 골령골을 스스로없이 찾아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골짜기가 울리도록 찾아왔던 울음보를 터트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지만...여전히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러기에는 과거사법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독 오른 살모사 딱히 같은 반공과 반인권의 위세와 맞서기에는 택도 없다고 하는군요.

진실을 밝힐 서류를 찾아내기 위해 수색할 수도 없고 찾아낸들 압수할 수도, 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조사위원들마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사람이 일을 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전 62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양각지에서 온 국민여러분!

유가족들이 반 백년 묵은 한을 풀고 내 자식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고도 오히려 그 죄 값을 유가족에게 덮어 씌우는 야만의 폭력은 이제 걷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가족 여러분!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정의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온 고통과 소외의 세월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고 내 후손들에게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값진 거름이 되게 합시다.

어두운 산내 골령골에 빛을 비춰야만과 폭력의 세월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3일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참가자 일동

대전산내학살 대책회의 주요활동 경과보고

<1950년>

6월 27일 / 이승만 대통령 및 정부 대전으로 피난

7월 2~10일 / 대전형무소 수감 좌익인사 및 군 예치수 처형된 것으로 추정.

7월 11~14일 / 보도연맹자 등 좌익계 인사 골령골서 계속 처형(인원 모름)된 것으로 추정.

<1992년>

2월 / 월간 ‘말’ 통해 최초보도

<1999년>

10월 / 대전참여자치연대내 ‘산내학살 진상조사반’ 구성, 자체 조사 착수

12월 / 제주 이도영 박사 통해 미국에서 해제된 비밀문서 발견
대전형무소 1800명 집단처형 보고서 및 학살 현장 사진 발견

<2000년>

1월 / 한국일보 후속보도 후 전국 여론화

12월 / 산내학살진상조사단 1차 회의 및 진상조사반 현장증언

2월 / 제주, 여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3단체 공동 피해 신고센터 개설
제주에서 4.3관련자 300명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복역 자료 발견
산내학살 현장부근 희생자 유골 다량 매장돼 있음을 확인

3월 / 대전전교도소, 도경찰청,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대전시 등 행정정보공개 신청

3월 3일 / 산내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회의(대전)

5월 2일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결성회의

7월 8일 / 1차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위령제(대전골령골, 300명 참석)

<2001년>

7월 8일 / 2차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위령제(대전골령골, 400명 참석)

9월 21일 / 대전산내학살 관련 통합특별법 제정 국회청원(김원웅 외 47명 국회의원 발의)

<2002년> 11월 7일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여의도 대회 참석(서울)

<2003년> 7월 8일 / 네 번째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개최

<2004년> 7월 4일 / 다섯 번째 대전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개최

<2005년> 5월 3일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 국회 통과

7월 3일 / 여섯 번째 산내학살 희생자 위령제 개최